

‘광주 메세나’ 전국 최하위...부끄러운 문화수도

기업들 지난해 문화예술 지원 6억 원에 불과... 전국 0.3% 그쳐
대기업 없어 관공서에 의존...시민들 품격 있는 전시·공연 못 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꼽히는 광주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 대기업이 없는데다, 다른 지역의 대기업들도 광주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이 관공서 지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도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전시·공연을 접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상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수식어가 낯부끄러운 셈이다.

따라서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지자체와 문화 관련 공공기관들이 대기업들과 지역문화예술 개인·단체와의 다양한 협업을 이끌어내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일 한국메세나(Mecenat)협회가 발표한 ‘2023년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15대 기업이 지원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광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서울(37.6%)의 12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세부 금액은 비공개했지만, 지난해 국내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전년도보다 0.7% 증가한 208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면 광주는 6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인구·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전(1.0%)과 울산(3.2%)은 광주보다 3배, 10배의 지원을 받았다. 광주는 강원(1.6%), 전남·전북(1.5%), 경남·경북(3.4%) 등보다도 기업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캐스퍼 EV 15일 첫 양산·하반기 2만대 공급 ▶2면

한국수영 파리올림픽서 황금물살 기른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강릉·속초·삼척 해안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뚝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특히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가 늘어난 데 반해 광주는 전년(0.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토대로 기업들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자체 선정’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문기관과의 협업(24.7%)’, ‘예술단체의 요청’(20.5%) 등의 비중도 높은 만큼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예술의전당 등 지역 문화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조사보고서에는 상위 10개 기업·재단의 지원사업도 열거됐는데, 광주의 경우 금호문화재단의 ‘금호아트홀’만이 유일하게 소개됐다. 그러나 금호아트홀마저도 지난해 운영을 종료하면서, 올해의 경우 지원 규모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아무래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진행되는 만큼 광주에 대기업이 유입되거나 서둘러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88개 대기업 집단 중 광주에 분사를 둔 곳은 ‘중흥건설’, 단 1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문화예술사업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KT&G, 기업 출연 문화재단 중에서는 삼성문화재단이었다.

기업 문화재단은 지난해 총 1142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리움’과 ‘호암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이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LG아트센터 서울’ 운영기관인 LG연암문화재단이 2위에 올랐다. 이어 롯데문화재단, 두산연강재단, CJ문화재단, KT&G복지재단, 현대차 정몽구 재단, GS칼텍스 재단, 금호문화재단, 호반문화재단이 10위 안에 랭크됐다.

서울과 춘천, 논산 등에서 ‘KT&G 상상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KT&G에 이어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 지속 후원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2위, 현대백화점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롯데백화점, 한미약품, 신한카드, 신한은행, 크라운해태제과그룹, DL이앤씨, 한화생명 등이 상위 10위 기업에 포함됐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기업들은 인프라에 가장 많은 1205억원(57.7%)을, 다음으로는 미술·전시 306억원(14.7%), 클래식 174억원(8.4%), 문화예술교육 131억원(6.3%), 비주류·다원예술 65억원(3.1%), 국악·전통예술 40억원(1.9%) 등 순으로 지원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99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 간 지원 금액이 큰 변동이 없어 사실상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기반과 예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의 메세나 단체와 공공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일 콜링시스템이 설치된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 정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락가락 장맛비...여수·순천·화순에 열대야

비 내일까지 30~80mm 내릴 듯

광주·전남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첫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 4일부터 5일 오전까지 30~80mm의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3일 예보했다.

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그친 4일 낮에는

최고기온이 28~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로 비를 뿌리면서도 광주·전남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2일 밤 여수와 순천, 화순 등 전남 6개 지역에 울어줄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열대야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 1분~다음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날 최저기온은 여수산단 25.6도, 순천시 25.4

도, 화순 능주 25.2도, 구례 25.1도, 보성군 25도, 나주 다도 25도를 기록했다.

3일 오후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화순·보성·광양·순천·영암·고흥·강진·장흥)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하는 가운데 비가 소강상태에 들 때 무더위와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尹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

80만명에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5년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의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

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만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3,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6(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본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